

북

근대화 통해 본 주거환경·생활 변천사

한국 주거의 미시사

전남일·양세화·홍형옥 지음



한국 근현대기 주거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세밀하게 파헤치고 풀이한 연구서 '한국 주거의 미시사'가 출간됐다.

전남일 가톨릭대 교수와 양세화 울산대 교수, 홍형옥 경희대 교수 함께 기획한 '한국 근현대 주거의 역사' 시리즈의 두 번째 권, 지난해 9월 나온 1권 '한국 주거의 사회사'가 주거문화의 변화를 근현대 사회의 큰 흐름과 함께 살펴봤다면, 이번 책은 집안에서 일어나는 구체적 변화를 주제한다.

'미시사'라는 제목에 알 수 있듯이 저자들은 부엌의 가전제품, 화장실 생필품까지 주거와 주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세밀하게 살펴봤다.

가령 '화장실'이라는 용어는 양변기가 들어와 있는 곳과 용변 보는 곳이 통합되면서 생겨난 신조어다. 화장실이 배설의 공간에서 물을 단장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한다.

저자들은 또 급격한 근대화로 가족의 형태와 관계, 역할, 상대적 지위가 바뀌자 그 변화는 고스란히 집에 스며들었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전통적 주택에서 여성 공간인 안채는 집 가장 깊숙한 곳, 해가 들지 않는 후미진 곳에 자리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근대적 주거문화와 신여성의 등장과 함께 여성은 주거문화의 선도자가 됐다. 여성들은 가사에 짚은 모습이 아니라 훈련한 거실에서 문화를 누리는 귀부인이 되려 했다. 음습했던 부엌은 밝고 공기 가 잘 통하는 곳으로 바뀌었으며 부엌에서부터 식사 공간까지 혼선도 끊어졌다.

여러 대의 자손을 거느리며 집안의 중심축 노릇을 했던 어른들의 위상도 크게 변화했다. 집안의 어른은 이제 젊은 부부가 부양해야 할 노인으로 전락했다.

전통적 주택은 어른들이 점유하던 방을 하나씩 아랫사람에게 물려줄더라도 옮겨 가는 거처의 규모나 폭격이 떨어지지 않아 집안 어른으로서 상징성을 잃지 않는 구조였지만, 근대적 주택에서 노인은 안방을 내주고 작은방으로 밀려났다. 훈육의 대상이던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생이라는 신분을 갖고 독방이 밭에 되자 상대적으로 노인의 영향력과 공간은 더욱 줄 수밖에 없었다.

저자들은 "주거환경은 사회적 필요와 함께 근대적 삶과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열망을 가진 거주자들의 요구에 따라 변화해왔다. 1950년대 후반 주택 계량 사업으로 건설된 서울 흥제동 일대 후생주택(사진 위)과 현재의 일산 신도시의 단독 주택 단지.



한국의 근현대 주거환경은 사회적 필요와 함께 근대적 삶과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열망을 가진 거주자들의 요구에 따라 변화해왔다. 1950년대 후반 주택 계량 사업으로 건설된 서울 흥제동 일대 후생주택(사진 위)과 현재의 일산 신도시의 단독 주택 단지.

그러면서도 저자들은 주거문화에서 잊어버린 가치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한다. 빠른 산업화 과정에 '생활의 혁신을 강요당한' 측면도 있으며 외형적인 질은 향상됐으나 전통적인 공간 정서를 순식간에 잊어버렸다는 것이다.

부록으로 근대화 과정에서 겪은 주거생활에 관한 서민들의 생생한 증언과 한국 근현대 주거사 연표를 실어 주거와 관련한 세세한 생활상의 변화를 쉽게 추적할 수 있게 했다. 또 친절한 설명이 있는 220여 개의 도판은 주거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돋는다.

〈돌베개·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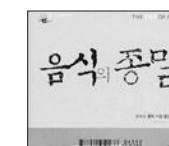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제국의 통로=영국 기자 조지 린치가 1903년에 출간한 서양인 최초 시베리아 횡단철도 여행기. 20세기 초 극동의 제국질서를 형성할 시기 열강의 시베리아 법관을 둘러싼 각축을 파헤치고 관찰했다. 일본은 출발해 대만제국을 거쳐 만주, 중국, 몽골, 시베리아, 모스크바까지. 일본과 러시아는 열강의 최고 지위를 다투고자 철도를 세우고 자국 주민들을 이주시켰다. 〈글하이리·1만5천원〉



▲명성성이 자일리톨에게=2006년 '여우야 여우야 웨이'로 제11회 한겨레문학상을 수상한 조영아씨의 첫 번째 소설집.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받는 아이와 사회에서 밀려난 아버지, 그리고 행성에서 떨어난 명성성. 세상의 궤도에서 퇴출당한 명성성 같은 존재들과 자일리톨처럼 쉽게 대체되는 불완전한 희망을 다룬 표제작 등 10편을 〈문학과지성사·1만원〉



▲음식의 종말=현대 기업농이 생산해 내는 농작물은 맛도 흉악하고 영양분도 점점 줄어든 '무늬만 음식'이다. 캐나다 출신의 언론인이나 농부인 토마스 폴리은 이대로 가다가는 열심히 음식을 먹어도 영양실조나 부작용으로 앓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 현대 기업농의 손에서 나오는 식품들은 말 그대로 식품으로서 수명이 다해 간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다. 〈길무리·1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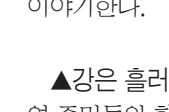
▲사카모토 료마 평전=일본의 무사 겹 정치가로 에도 막부 말기 막부 태도운동 지도자로 활동했고, 메이지 유신 직전 피살된 사카모토 료마의 일대기다. 일본에서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료마의, 28세에 목숨을 건 탈벌을 하여 33세에 교토에서 불꽃 같은 삶을 마감하기까지의 여정을 실감나게 그려냈다. 〈더숲·1만4천900원〉



▲꼬마 꾸뻬, 인생을 배우다=프랑스와 독일에서 활동하는 정신과 의사자 작가인 프랑수아 르로르의 '꾸뻬씨' 연작이다. 전작 '꾸뻬씨의 행복여행'이 행복이란 우리 인생 가까이에 있음을 알려주었다면 이번 책에서는 '꼬마 꾸뻬'의 호기심과 질문을 통해 사랑, 관용, 배려 등 삶의 소중한 원칙을 전하고 있다. 〈열림원·1만4천원〉



▲아이팟의 백스테이지를 엿보다-아이디어를 성공으로 이끄는 전략=제품 및 시장개발 전문가 필 베이커가 훌륭한 제품을 창조하고, 시장에 출시해내는 노하우를 담았다. 애플의 아이팟에서 스포츠워어웨어 허대용 키보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허대용 제품과 액세서리에 이르는 제품 개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제품에 대한 콘셉트를 만들어내고, 이를 성공적인 제품으로 변환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시그마북스·1만4천원〉



▲강은 흘러야 한다=1,370번의 낙동강 답사를 통해 낙동강과 유역 주민들의 환경 과제를 발굴하여 환경부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 오고, 운하백지화 국민운동 공동대표 등을 맡으며 35년간 강 지킴이로 살아온 김상화의 '진짜 4대 강 살리는 이야기'이다. 어머니 낙동강의 내리사랑에 대한 저자의 애정 가득한 사모곡을 담았다. 〈미들하우스·1만2천원〉

선비

김기현 지음



선비란 누구인가. 사람들은 보통 각 쓰고 도포 입은 유학자를 떠올리지만, 진정한 의미의 선비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전북대 윤리교육과 김기현 교수가 시대를 초월해 창조적

인 지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비정신의 모든 것을

담은 연구서 '선비·사유·삶의 지침'을 펴냈다.

저자는 진리와 도의에 따라 자아를 확립하고 완성

하였다. 사람이 진정한 선비라면 퇴계 이황을 그

표상으로 제시하고, 그들의 진지한 사색과 자아를

완성하려는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

가 있다고 말한다.

의로움 갖춘 창조적 지성이 진정한 선비

김기현 지음

총 4부로 구성된 책은 선비정신의 근본이 되는 우주적 자연관과 거기서 배운 인간학, 사회학 그리고 죽음과 삶에 관한 자세하고 체계적인 고찰을 통해 선비의 본모습을 살려낸다.

1부와 2부에서는 선비정신의 근본이 되는 우주적 자연관과 인간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선비는 자연을 개념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인식하기보다 감각적인 직관과 시적 감성으로 직접 대면하고 체감했다.

자연은 단순한 사물들의 집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만물을 생성하고 주재해 나가는 요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적 역량이라고 본 것이다.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의 요람 속에서 만물과 상호

의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존재로 보았다.

선비가 평생토록 추구했던 수신, 제가, 치국, 평천

하의 이념에는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이 깔려 있다. 3부 '사회' 편에서는 이러한 선비들의 치세관을 다루고 있다.

4부에서는 죽음과 삶, 선비들의 사생관(死生觀)에 대해 다뤘다. '삶도 내가 원하는 바요, 의로움 또한 나가 원하는 바이지만, 두 가지를 다 취할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로움을 취하겠다'는 맹자의 말은 선비의 사생관을 압축해 보여준다.

이처럼 저자는 선비의 사상적 배경과 그들이 실천하고자했던 모든 덕목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역사 속에 잊혀 가는 오로한 '선비'의 상을 생생히 재현했다. 믿고 떠를만한 정신적 승이 없는 이때에 견본으로 삶을 만한다.

〈민음사·2만5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경매에 관한 모든 상금 062)236-3400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번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종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근현시대/원통

대표이사 010-7570-7525

속독사업/상가

부동산재정 010-8308-8443

증권/보험

대표이사 010-8308-8443

증권/보험

증권/보험

부동산/임대

대표이사 010-8308-8443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

대표이사 010-8308-8443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

대표이사 010-8308-8443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

대표이사 010-8308-8443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

대표이사 010-8308-8443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

대표이사 010-8308-8443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

대표이사 010-8308-8443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

대표이사 010-8308-8443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

대표이사 010-8308-8443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

대표이사 010-8308-8443

<h4